



롯데중앙연구소 임직원 '덕분에 챌린지' 진행 롯데중앙연구소는 이경현 소장(가운데)과 임직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 중인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제과 민명기 대표이사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이경현 소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재선 한국리서치 사장과 강현구 지보단 코리아 대표를 지목했다. /롯데중앙연구소

광주·호남 60개 전통시장 동행세일 참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광주·호남지역의 6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시작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오는 12일까지 전국에서 펼쳐진다.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광주 1913송정역시장은 휴대용 손소독제 만들기,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등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버스킹을 통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 순천역전시장은 동행세일 기간 중 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행사를 실시한다. 선착순 50명의 고객에게 스탬프 북을 나눠주고, 지정된 할인점포 중 7군데를 먼저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완료 스탬프와 다양한 경



광주 1913송정역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진공

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치맥과 티, 요리대회 등 함께 즐기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 말바우시장, 전남 여수수산시장, 제주 도남시장, 전북 삼례시장 등 여러 시장에서페이백 행사를 실시해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금액대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한국투자공사(KIC) △ 경영관리부부장 정지환 △ 준비감사인 정수용 △ 운용전략본부장 이훈 △ 대체투자본부장 김홍호 △ 투자시스템실장 문창용
- ◆한국금융연구원 ◇ 승진 발령 △ 임형준 선임연구위원
- ◆한국환경공단 △ 전보(부서장) △ 감사실장 박재영 △ 대기환경처장 강동규 △ 사업장대기처장 유재형 △ 기후변화대응처장 임형열 △ 악취관리처장 김형석 △ 하수도처장 유영권 △ 상수도처장 백선재 △ 토양지하수처장 한영민 △ 자원순환처장 고호영 △ 환경정보장처장 김용대 △ 폐기물관리처장 김상준 △ 상하수도시설처장 위육량 △ 화학물질평가처장 정현중 △ 물산업실증화처장 백인수 △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이창훈 △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이호철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홍지선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안병철 △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송병선 △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박종호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이준석 △ 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김창용 △ 호남권지역본부 제주지사장 김덕진
- ◆농림축산식품부 ◇ 3급 승진 △ 감사담당관 변동주 ◇ 과장 승진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서봉열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김종원 △ 과장급 전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정 김병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한중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한성권 △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 하중수
- ◆헌법재판소 △ 심판민원과장 이영일 △ 정보화기획과장 박인수
- ◆한국언론진흥재단 △ 경영기획실장 정민 △ 지역언론지원국장 장부영 △ 미디어진흥실장 오수정 △ 광고기획과장 최대식 △ 광고운영과

- 장 황호출 △ 지역언론팀장 송남수 △ 미디어교육팀장 안계현 △ 광고전략팀장 김상용 △ 광고협력팀장 안익균 △ 광고건설팀장 홍원철 △ 정부기관광고팀장 김용섭 △ 공공기관광고팀장 조대근 △ 지자체광고팀장 정문규 △ 공공법인광고팀장 서인식
- ◆병무청 ◇ 과장급 전보 △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장 오재덕 △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민선기 ◇ 과장급 승진 △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임준모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도명곤
- ◆통일부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이은희 △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서기관 김민경 △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 서기관 배성환 △ 사무관 승진 △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행정사무관 홍대진 △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 행정사무관 박유진 △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행정사무관 김유진 △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 공업사무관 김종민

부음

- ▲ 권옥순씨 별세, 김영섭(인천대학교 사무처장)씨 모친상 = 29일, 시흥 센트럴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010-3337-5837
- ▲ 양봉오씨 별세, 양경덕(스포츠투와 정치연구소 소장)·송의·송욱·정자·송복(경북일보 부장)씨 부친상, 이정화·차남선씨 시부상 = 30일 오전 6시 30분, 대구 제일효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7월 2일 오전 6시 30분. 053-525-1024
- ▲ 주회진(전 한신파인엔지니어 대표이사)씨 별세 = 29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장례식장, 발인 7월 2일 오전. 031-861-0044
- ▲ 김순자씨 별세, 주경애(KBS 대구방송총국 심의위원)씨 모친상 = 30일 오전 8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5호, 발인 7월 2일 오전. 010-9120-0341

효과 의문스러운 '예술 뉴딜'



홍경한의 시시일각

정체불명의 캐릭터와 온갖 꽃과 동식물, 인물, 풍경 등이 알록달록 새겨진 벽화. 서울은 물론 부산, 대전 등 거의 모든 지자체마다 벽화가 있다. 전국에 벽화마을만 100개가 넘는다. 거의 난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엔 정부까지 가세했다. 지난달 3일 문체부는 지역주민 공동사용 시설과 낙후된 지역의 공공기관에 벽화와 조각 작품을 설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른바 '예술 뉴딜'로 전국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되 정부가 사업비 8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전체 예산은 759억원이다.

8500여명의 미술인에게 일자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취지 면에선 그리 나쁘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기에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노동 가치로 환원한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술계 반응은 싸늘하다. 눈앞의 고통만을 잠재우기 위한 한시적·단편적 용역사업에 불과한데다 공공공간에 들어서는 벽화의 특성상 내용 제약, 사후 관리,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의 예술 뉴딜과 닮은 1930년대 미국 연방예술프로젝트의 경우 예술인들에게 5000여 개의 일거리를 주었고, 불과 8년 동안(1935~1943) 벽화를 포함한 약 20만점의 작품을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어두운 그림은 그리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적 신념이 드러나는 작품도 불허했다.

결국 예술 뉴딜에 참여한 작가들은 얼마 못 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이탈했다. 뉴딜 벽화는 양적 결과 대비 질적인 부분에선 한계가 분명했으며, 일부를 제외하곤 미술사적 의미도 얻지 못한 채 거의 사라졌다.

내용의 제약은 계몽적이거나 낮은 수준의 그림과 관계있다. 예술성과 시민 눈높이가 상치될 경우 곧잘 민원도 발생한다. 민원이 들어오면 애초 목적과 상관없이 철거까지 감행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세계적인 거장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 '꽃의 내부'를 무단 철거한 뒤 고물상에 팔아넘긴 부산 해운대구의 2017년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자체에는 설치작품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거나 주민 이해를 구할 상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인력과 예산 불충분은 결국 사후관리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해당 주민들의 삶과 정서와 동떨어진 벽화사업은 사회적 자산으로 남기 어렵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관광자원화되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사생활 침해와 주민 갈등, 공동체 붕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봉착한다. 그리고 우리 이미이

다.

일례로 정부의 예술 뉴딜과 닮은 1930년대 미국 연방예술프로젝트의 경우 예술인들에게 5000여 개의 일거리를 주었고, 불과 8년 동안(1935~1943) 벽화를 포함한 약 20만점의 작품을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어두운 그림은 그리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적 신념이 드러나는 작품도 불허했다.

결국 예술 뉴딜에 참여한 작가들은 얼마 못 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이탈했다. 뉴딜 벽화는 양적 결과 대비 질적인 부분에선 한계가 분명했으며, 일부를 제외하곤 미술사적 의미도 얻지 못한 채 거의 사라졌다.

내용의 제약은 계몽적이거나 낮은 수준의 그림과 관계있다. 예술성과 시민 눈높이가 상치될 경우 곧잘 민원도 발생한다. 민원이 들어오면 애초 목적과 상관없이 철거까지 감행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세계적인 거장 데니스 오펜하임의 유작 '꽃의 내부'를 무단 철거한 뒤 고물상에 팔아넘긴 부산 해운대구의 2017년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자체에는 설치작품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거나 주민 이해를 구할 상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인력과 예산 불충분은 결국 사후관리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해당 주민들의 삶과 정서와 동떨어진 벽화사업은 사회적 자산으로 남기 어렵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 관광자원화되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다. 사생활 침해와 주민 갈등, 공동체 붕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봉착한다. 그리고 우리 이미이

브룩스러닝, 국립암센터에 러닝화 '론치7' 기증

암투병후 사망한 육상선수 뜻 기려 의료진들에 러닝화 200여족 전달



송주백 브룩스러닝 팀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과 이찬화 국립암센터 진료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물산 패션부문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러닝 브랜드 '브룩스러닝'은 미국 희귀암지원단체인 '브레이브 라이크 게이브'와 협업해 만든 '론치 7'을 지난 29일 국립암센터에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레이브 라이크 게이브'는 지난해 6월 11일 암으로 사망한 게이브 그룬왈드(이하 게이브)가 죽기 1년전 설립된 희귀암 연구지원 단체이다.

브룩스러닝이 후원한 육상 선수 '게이브'는 10년간 2차례의 희귀암과 갑상선암 투병을 하면서도 육상선수로서 계속 활동했고,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러닝 온 호프'를 전 세계에 전했다.

특히 브룩스러닝은 '게이브'가 강조했던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희귀암지원단체인 '브레이브 라이크 게이브'와 협업해 '론치 7'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을 출시했다.

'게이브'의 슬로건인 '러닝 온 호프'의 타이포그래픽과 트레이드 마크 컬

러인 블루와 화이트로 디자인했다.

브룩스러닝의 국내 사업 총괄인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게이브'의 뜻을 기려, 국립암센터에 '론치 7' 러닝화 200여족을 증정했다. 해당 러닝화는 국립암센터 의료진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세븐일레븐과 함께 한돈을 이용한 간편식 3종을 판매한다.

한돈 농가 돕는 착한 간편식 시리즈 출시

한돈자조금-세븐일레븐, 3종 선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한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을 사용한 간편식 3종을 신제품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한돈자조금과 세븐일레븐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이용해 우리 돼지로 만들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라는 컨셉으로 '숯불맛 한돈 대파구이 도시락', '한돈 클래식 핫도그', '한돈 불고기비빔밥'을 출시했다. /한용수 기자 hys@